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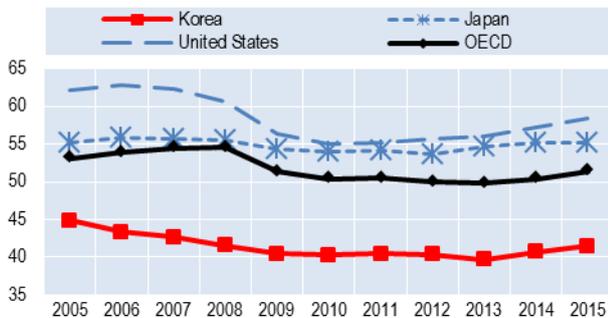


2016 한눈에 보는 사회는 OECD 국가의 사회적 웰빙 현황과 변화추세를 살펴본다. 경제 위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는 청년 니트(NEET)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니트가 될 위험이 있는 청년들의 특징과 이들을 돕기 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동 보고서는 또한 가족 형성, 자기 충족, 소득과 빈곤, 건강과 사회통합과 같은 청년에 특화된 새로운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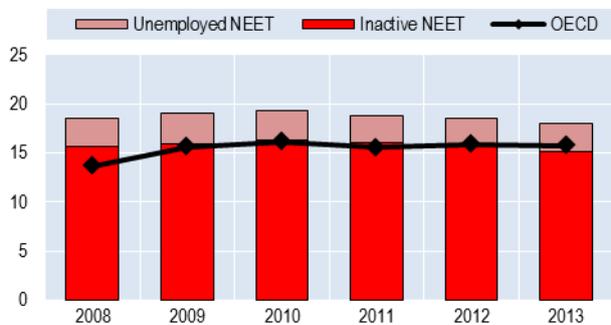
### 청년고용률은 낮은 수준에서 더 떨어졌음

청년 고용률, 2005-2015  
15-29 year olds

활동 상태별 니트비율, 2008-2013



[그림 1.2]



[그림 1.5]

노트: 니트비율은 15-29 세 청년 중 일, 교육, 훈련 가운데 어느 것도 하지 않는 청년의 비율을 의미한다.

### 청년니트의 상황

지난 10 년간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4% 포인트 이상 하락하였는데 [그림 1.2], 이는 OECD 평균 3.3% 포인트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약 10% 포인트 낮다. 한국 청년은 교육에 오래 남아 있으며, 교육과 일을 같이하고 있는 15-29 세 인구는 5%로 OECD 평균은 12%보다 매우 낮다. [그림 1.4].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경력을 쌓도록 이끌어 주고, 고용주와의 관계형성을 도와줌으로써 학교에서 일터로의 전환을 쉽게 하게 한다.

15-29 세 청년 중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는 니트(NEET)의 규모는 2013 년 18%로, OECD 평균 16%보다 높다.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위기(07-08 년) 동안 증가했으나, 한국에서는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청년 고용률의 하락을 볼 때, 많은 청년들이 실업이나 비구직 상태에 있는 대신에 교육에 더 오래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1.5].

한국의 청년여성은 청년남성보다 단지 10%만이 더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는데, OECD 평균 40% 비례 매우 작은 성별격차이다 [그림 1.11]. 이는 한국에서 첫 아이를 낳는 엄마의 평균연령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아래 참조). 한국의 청년은 가족형성을 30 대로 미루기 때문에 돌봄 책임은 한국 청년여성들을 니트가 되게 하는 주된 원인이 아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육은 거의 보편적이다. 2014 년 25-34 세 청년의 2%만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고, 이는 OECD 16% 이상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 1.26].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니트가 될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대학졸업자보다 니트가 될 확률이 OECD 평균 3.6 배 더 높다. 한국에서 이런 관계는 강하지 않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은 대학졸업자보다 단지 1.7 배 더 니트가 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그림 1.9].

한국의 니트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2013 년 OECD 의 56%에 비해 한국은

84%가 비구직 상태에 있다 [그림 1.5]. 한국의 노동시장 분절현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고용안정,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은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취업할 희망으로 추가적인 교육이수나 자격증 획득을 위해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도록 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교육은 공식적 교육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므로 노동시장 통계에서는 비구직 니트로 잡히게 된다.

한국에서 니트문제는 기본 스킬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어휘력, 수리력이 높은 청년층과 낮은 청년층의 니트비율 차이는 OECD 어느 나라보다 낮다 [그림 1.10]. 이는 분절화된 노동시장 때문에 한국의 청년들이 비효율적인 과잉교육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교육에서 고용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2014년 독일과 스위스의 영향을 받은 견습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방향으로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 다른 사회지표 개관

### 낮은 출산율

한국은 OECD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이다. 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2014년 1.21로, OECD 평균 1.7이나 인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2.1보다 매우 낮다 [그림 3.4]. 한국은 1970년 합계출산율이 4.5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나, 매우 급격히 떨어졌다. 첫 아이를 낳는 엄마의 평균연령도 31세로 OECD에서 가장 높는데, OECD 평균은 28.7이다 [그림 3.6]. 취업여성의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한국은 최근 보육지원을 급격히 확대하였다. 6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2002년 30%에서 2014년 66%로 증가하였다 (OECD 2016).

### 평균이하의 사회복지지출

2014년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0%로, OECD 평균 21%에 비해 매우 낮다 [그림 5.9]. 멕시코만이 8%로 한국보다 낮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2007년 경제 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총 3% 포인트 넘게 증가하였다. 주요 항목별 지출수준이 모두 OECD 평균보다 낮는데, 특히 낮은 연금지출이 두드러진다. 이는 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도입되어 완전히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GDP 대비연금지출은 OECD 평균 8% 대비 2.6%이다 [그림 5.10]. 이는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연결된다.

## 높은 노인 빈곤율

한국에서 빈곤은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 인구전체 빈곤율은 14%로 OECD 평균 12%보다 높으나, 주로 65세 이상 인구가 영향을 받는다. 65세 이상 인구의 거의 절반이 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13%보다 매우 높다 [그림 5.6]. 반대로 아동 빈곤율은 OECD에서 가장 낮은 나라들 그룹에 속한다: 18세 미만 중 단지 7%만이 빈곤하며, 이는 OECD 평균 14%의 절반 수준이다. 18-25세 청년층도 OECD 평균보다 빈곤할 확률이 낮다: 한국 9% 대비 OECD 12%.

## 높은 자살률

자살은 한국에서 주요한 사망원인이다. 2014년 인구 10만명당 자살 건수는 29로 OECD 평균 12의 두 배 이상이며, OECD에서 가장 높다 [그림 6.6].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할 확률이 높는데 한국은 거의 3배 정도 높다 [OECD 평균은 4배]. 한국은 특히 노인 자살률이 높는데, 70-74세 노인인구 10만명당 자살건수가 105, 85세 이상은 230으로 OECD 평균보다 4-5배 높다.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25년간 급격히 높아졌다 [그림 6.7]. 1990년대 아시아 경제위기 시기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일본도 이 시기 유사한 증가를 보였다. 일본의 자살률이 2000년대 초기에 안정화되어 최근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은 2000년대 계속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 약한 사회관계망

가족, 이웃, 친구와의 유대는 개인의 웰빙,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알려지는데 특히 노인에게 그러하다. 한국에서 이런 유대관계는 매우 약하다: 50대 이상의 61%만이 의지할 수 있는 친척, 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OECD 평균 87%보다 낮고,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그림 7.13]. 30-39세 응답도 78%로 OECD 평균 90%에 비해 낮고, 30대 이하인 경우도 93%로 OECD 평균 95%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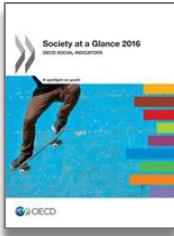
Reference: OECD (2016, forthcoming), Dare to Share: Germany's Experience Promoting Equal Partnership in Families, OECD Publishing, Paris.

### Contacts:

OECD Social Policy Division,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Stéphane Carcillo +33 (0)1 45 24 8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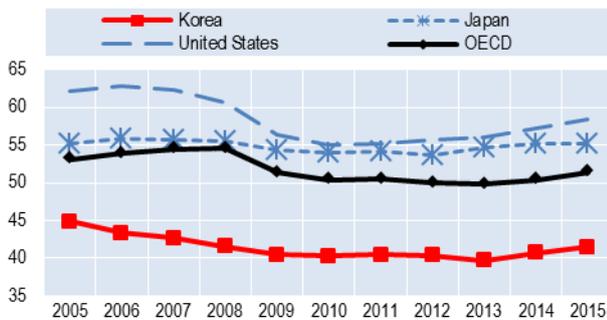
[stephane.carcillo@oecd.org](mailto:stephane.carcillo@oecd.org)



The 2016 edition of *Society at a Glance* examines social well-being and its trends across the OECD. The number of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s) remains elevated in many countries since the crisis; the report therefore focusses on this group of young people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at risk of being NEET along with policies to help meet the challenge. This edition also includes many new youth-specific indicators on family formation, self-sufficiency, income and poverty, health and social cohe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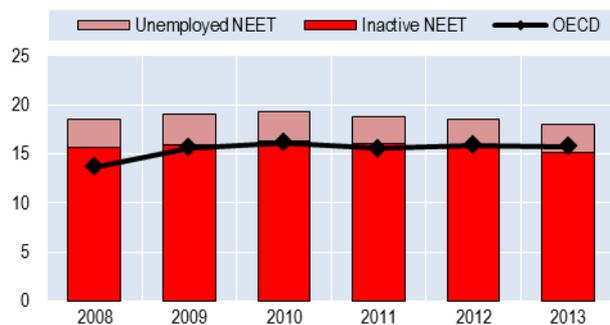
### Youth employment dropped further from a low level

Youth employment rate, 2005-2015  
15-29 year olds



[Figure 1.2]

NEET rate by activity status, 2008-2013



[Figure 1.5]

Notes: The NEET rate is the share of 15-29-year-olds who ar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 THE NEET SITUATION

Youth employment in Korea dropped by over 4 percentage points over the last decade [Figure 1.2], more than on the OECD average (-3.3 ppts.). The youth employment rate is now about 10 percentage point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Young people remained in education longer, and very few young Koreans combine education and work: 5% of all 15-29 year-olds, compared to 12% on the OECD average [Figure 1.4]. Combining work and study can help smooth school to work transitions by steering young people towards a career and facilitating relationships with employers.

The share of young people aged 15-29 who ar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was 18% in 2013,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of 16%. It remained stable throughout the crisis, while it increased in most other countries. This was mainly because, following the drop in youth employment, more young people remained in education for longer instead of becoming unemployed or inactive [Figure 1.5].

Young women are only 10% more likely to be NEET than young men, one of the smallest gender gaps in the OECD – on average, women are 40% more likely to be NEET than men [Figure 1.11]. This may be connected to the high average age of first-time mothers in Korea (see below) – because young Koreans delay family formation into their 30s, care responsibilities are not a major cause for NEET status among young Korean women.

Upper secondary attainment is nearly universal in Korea – in 2014, only 2% of all young Koreans aged 25-34 had not attained an upper secondary qualification, compared to over 16% in the OECD – fewer than in any other country [Figure 1.26]. Generally below upper secondary attainment is one of the biggest risk factors of being NEET, and on the OECD average, such youth are 3.6 times as likely as university graduates to become NEET. In Korea, this relationship is not as strong, and low educated youth are only 1.7 times as likely to be NEET as their university educated peers [Figure 1.9].

Most Korean NEETs are not actively looking for a job – 84% of them were inactive in 2013, compared to 56% on

the OECD average [Figure 1.5]. **Pronounced labour market segmentation in Korea** leads to many young people delaying their entry into the labour market to acquire additional qualifications and certificates in the hopes of being hired by a big firm or the public sector. Because this further education takes place outside the formal education system, these youth appear as NEET inactive in labour market statistics.

As the NEET problem in Korea is not driven by young people lacking basic skills – indeed, the gap in NEET rates between those who have low and high skills in literacy and numeracy is lower in Korea than any other OECD country [Figure 1.10] – this indicates that young Koreans engage in inefficient over-education in the face of a segmented labour market.

**Facilitating transitions from education to employment** is therefore a priority for Korea – the introduction of an apprenticeship system inspired by the German and Swiss systems in 2014 is a step in this direction.

## OVERVIEW OF OTHER SOCIAL INDICATORS

### Low fertility

**Korea is the country with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OECD.** In 2014, Korean women were expected to have only 1.21 children in their lifetime, well below the OECD average of 1.7, and the rate necessary to keep the population constant, 2.1 [Figure 3.4]. Fertility fell very quickly in Korea – in 1970, total fertility was 4.5 children per woman, the then second-highest fertility rate in the OECD. **The average age of first-time mothers is also the highest in the OECD**, 31 versus 28.7 on the OECD average [Figure 3.6]. To make starting a family easier for working women, Korea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ublic provision of childcare in recent years. The shar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6 enrolled in formal childcare increased from 30% in 2002 to 66% in 2014 (OECD 2016).

### Below-average social spending

**In 2014, social spending as a share of GDP was 10% in Korea**, compared to 21% on the OECD average [Figure 5.9] – only Mexico spent significantly less (8%). Social spending as a share of GDP steadily increased since the onset of the Great recession in 2007, by over 3ppts in total. While expenditure is low compared to the OECD average in all major expenditure categories, **low spending on pensions is particularly striking**, as the recently introduced pension system has not fully matured yet. It amounts to 2.6% in Korea, compared to 8% on the OECD average [Figure 5.10]. This is connected to the high incidence of poverty among older Koreans.

### High poverty among the older population

**Poverty in Korea is concentrated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While at 14% the overall poverty rate in

Korea was above the OECD average of 12% in 2014, mainly those over 65 are affected. Nearly half of all Koreans aged 65 and above lived below the poverty line, compared to 13% on the OECD average [Figure 5.6]. **In contrast, the incidence of child poverty was among the lowest in the OECD:** only 7% of all children under 18 were poor, half the OECD average of 14%. Also young Koreans aged 18-25 were less likely to be poor than on the OECD average: 9 vs. 12%.

### High suicide rate

**Suicide is a significant cause of death in Korea.** In 2014, there were 29 suicides per 100 000 persons, more than twice the OECD average of 12, and the highest rate in the OECD [Figure 6.6]. As in other countries, men are more likely to commit suicide than women – nearly three times as likely in Korea [Four times on the OECD average]. **Older Koreans are particularly likely to take their own lives** – the incidence of suicide was 105 per 100 000 Koreans aged 70 to 74, climbing to 230 for those aged 85 and over – four to five times the OECD average.

**The Korean suicide rate increased rapidly over the last 25 years** [Figure 6.7]. It more than doubled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the 1990s, coinciding with a similar increase in Japan. But while the Japanese suicide rate stabilised in the early 2000s and declined in recent years, the Korean suicide rate grew throughout the 2000s, and is only on the decline since 2011.

### Weak Social Networks

Ties to family, neighbours and friends have been shown to improve wellbeing and health, especially for older people. Such ties are quite weak in Korea: **only 61% of over 50 year-olds report having a relative or friends they can count on**, compared to 87% on the OECD average – the lowest value in the OECD [Figure 7.13]. This share is also below average for Koreans aged 30-49 – 78% compared to 90% across the OECD, and, to a lesser extent, for young people below 30 (93% in Korea vs. 95% in the OECD).

Reference: OECD (2016, forthcoming), *Dare to Share: Germany's Experience Promoting Equal Partnership in Families*, OECD Publishing, Paris.

### Contacts:

*OECD Social Policy Division,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Stéphane Carcillo** +33 (0)1 45 24 80 31  
[stephane.carcillo@oecd.org](mailto:stephane.carcillo@oecd.org)